
第7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內務委員會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5年2月28日(火) 午前10時

場所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95年度監查官所管業務計劃報告
 2. '95年度消防本部所管業務計劃報告
-

審査된案件

1. '95年度監查官所管業務計劃報告 ... 2面
-

(10時 36分 開議)

○委員長 朴禧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서울特別市議會 第75回 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 開議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第75回 臨時會를 맞아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95年度 올해년은 光復 50年과 地方化 元年을 맞이하는 해로써 國際化, 世界化를 위한 노력들이 各界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第3代 市議會의 任期가 上半期 中 滿了된 후에는 民選市長의 등장과 새로운 市議會의 구성 등 市政의 與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執行부와 市議會 각기 맡은바 責務에 최선을 다하여 市民 모두의 여망에 부응하고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臨時會에서는 所管局의 95年度 業務計劃을 報告받고

接受된 案件을 審査하도록 하겠습니다.

1. '95年度監査官所管業務計劃報告

(10時 37分)

○委員長 朴禧柱; 그러면 案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95年度 監査官所管 業務計劃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그 동안 投入人力이나 裝備面에서 우리 나라 監査史上 최대의 規模로 記錄될 22個 區廳의 登録稅 自體特別監査를 50餘 日間に 걸쳐 실시한 후 20日 1次 監査를 終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市政府에 대한 市民의 不信이나 의혹이 불식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고, 그러한 非理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對策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監査官은 나오셔서 所管業務에 대한 95年度 業務計劃을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官 李相鎭;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第75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에서 지난 한 해 동안 監査官室에서 處理한 主要業務實績과 올해 推進할 主要業務計劃에 대해서 報告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年末 行政事務監査時에도 여러 委員님들께서 市政發展을 위한 좋은 意見과 격려를 해 주셔서 올해 業務計劃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監査官室 職員 一同은 맑고 투명한 市政

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고뇌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5年度 業務報告에 앞서 人事發令에 의해 이번에 監査官室로 轉入된 幹部를 먼저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幹部紹介 : 監査擔當官 金興權, 指導擔當官 車天福, 公職者倫理委員會事務擔當官 文永模, 生活改革推進班長 金燦坤)

이제까지 生活改革推進班長으로 일하던 韓吉燮 課長은 産業經濟局 農水産流通課長으로 轉補發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5年度 監査官室所管 主要業務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감사관실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
監査院의 綜合監査는 江南, 恩平, 都市開發公社 등 6個 機關에서 監査를 받은 바 있습니다.

部分監査는 93年度 豫算執行實態에 대해서 本廳 및 全 區廳이 受監을 했고, 그밖에 行政刷新分野, 行政電算推進實態, 빗물펌프장 崩壞事故 등 總 24회에 걸쳐 168個 機關에서 監査를 받은 바 있습니다.

市廳 自體監査는 25번에 걸쳐 266個 機關에 대해서 監査를 실시했습니다.

당초에 綜合監査는 陽川區와 地下鐵公社 2個 機關이었는데 陽川區는 計劃대로 실시를 했지만 地下鐵公社는 監査院 監査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留保를 했습니다.

그리고 年末 登錄稅特別監査를 실시했습니다.

.....
(報告繼續)

감사관실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
主要事例를 말씀드리면, 體育施設管理事業所 8級 송동란은
잠실야구장 入場客이 버리는 쓰레기 處理問題를 능동적으로
解決하기 위해서 對外的으로 各種 言論媒體에 야구장 쓰레기
실상을 알려 集中 報道케 하고 對內的으로는 야구장 전광판
및 案内放送을 통해서 自律清掃를 지속적으로 啓導를 함으로
해서 觀覽人員은 75%가 늘었으나 쓰레기 發生量은 18%가
줄어서 收去豫算을 節減하고 自律清掃 분위기를 정착하도록
한 것이 實證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發掘해서 表彰을 했습니
다.

.....
(報告繼續)

감사관실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
그래서 이것을 入力시키다 보니까 컴퓨터를 1,900대를 動員
을 했고, 入力要員과 보조요원 3,500名을 動員했습니다. 그래
서 電算入力が 끝나고 電子計算所에서 일단은 電算으로 出力
을 해 보니까 52萬件이 넘는 이런 것이 전부 不一致한 資料
로 出力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言論에서 대단히 이 52

萬件이 뭔가는 橫領疑惑이 있다. 이런 것으로 報道가 됐고, 그래서 이것을 1次로 전부 가져가서 原簿와 같이 다시 全職員들이 대조를 해봤더니 94%가 資料가 잘못 入力이 됐거나 또는 資料는 잘 되어 있는데 入力過程에서 錯誤가 발생했거나 하는 이런 사항으로 전부 발체가 됐습니다.

여기서 委員님들께 解明을, 說明을 드려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이렇게 入力錯誤分이 많이 나왔느냐 하는 問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12月 29日부터 監査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 때 大學入試철이 돼서 電算學院이라든지 各 大學校 電算科에 있는 熟達된 이런 컴퓨터 要員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의뢰를 했더니 各 大學校가 入試철이라 전부 大學으로 차출되어서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專門要員을 53名밖에 저희가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500名이나 되는 人員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各 區廳에 있는 PC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전부, 女職員이든 男子職員이든 다 動員을 했더니 22個 區廳에서 補助要員까지 해서 전부 配置를 해서 컴퓨터를 1,900대 확보해서 入力を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TV를 예를 들어서 아침에 8時 半부터 밤 10時까지 , 14時間을 TV를 보라 하더라도 아마도 몸이 아프거나 눈이 아파서 못볼텐데 이것은 가까이 있는 PC에다 그냥 이 資料를 찾아서, 1件 1件 資料를 찾아서 入力を 시키다 보니까 職員들이 눈이 아파서 계속 眼藥을 넣어가면서 계속해서 作業을 했습니다. 1件에 대해서 入力시키는 項目이 이게 그냥 1件 入力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住所, 姓名, 課標稅額, 納付日字, 納付番號, 登錄稅 領收證番號해서 일곱 여덟 가지 事項을 하나 하나 이렇게, 1件이 그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入力하는데 여러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入力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더군다나 이것을 너무 오래 監査를 할 수는 없고 일단 入力이 되어야지 監査가 되기 때문에 한 20餘 日을 하루에 한 14時間, 15時間 동안 계속해서 入力を 시켰습니다.

그래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入力錯誤라든지 資料 잘못된 것이 많아서 그것을 다시 또 한 번 手作業으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再出力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 26萬 3,509件에 대해서는, 반으로 줄어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件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實地監査가 들어갔습니다.

.....

(報告繼續)

감사관실 업무보고

(보고 중단)

(뒤에 실음)

.....

물론 여기에는 지난 번에 江南區廳에서 발생한 231件 9億 5,000萬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친다면 이것이 671件에 14億 1,000萬원 정도, 14億 1,000萬원 정도가 서울시에서 일단 登錄稅 非理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件에 대해서는 모두 檢察에다 일단 搜查依賴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職員은 48名으로 대략 추정이 되는데 法務士가 37名, 登記所 職員이 1名, 우체국 職員이 1名, 銀行職員이 5名 이렇게 해서 총 48名 정도가 이렇게 되는데 서울시 職員은 여기에 1名도 지금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 직원이 없느냐, 이것이 자신 있게 서울시 職員은 결부가 안 됐다고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 理由는 서울시 職員들이 登記를 직접 作成해서 登記를 代行하는 業務를 맡고 있지 않고 그 業務는 法務士가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돈 取扱은 法務士가 手記領收證을 만들어서 銀行에 納付하면 銀行에서 通報는, 그 事項만 이쪽에서 區廳職員이 하기 때문에 직접 연관되는 것은 밝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은 法務士가 虛僞로 登録稅 領收證을 作成하거나 金額을 적게 作成을 해서 納付시킨 다음에 銀行에서 구청으로 通報오는 것을, 또 登記所에서 區廳으로 通報온 두 가지를 對照하는 것은 區廳職員이기 때문에 이 對照할 때 발각이 될까봐 이상한 것이 있거든 네가 없애 버려달라든지 아니면 묵인해 달라든지 하기 때문에 돈을 쥐서 이것을 묵인해 달라고 請託을 했을 가능성은 排除할 수가 없는데, 行政檢査로써는 그 事項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을 檢査에다 넘겼기 때문에 搜查過程에서 區廳職員이 여기에 연관이 됐느냐 하는 事項은 밝혀질지도 모른다 하는 事項으로 해서 그것을 檢査에서 나중에 밝혀야 할 그런 事項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登録稅 監査로 서울에 稅務非理는 전혀 없다 하는 監査는 저희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次로, 여기에서 못한 部分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電算에서 登録稅 領收證의 일련번호가 같거나 또는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일련번호가 없는 것은 對照를 못했습니다, 電算으로. 그 事項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重複分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重複分이 나온 것은 다시 또 접어 넣습니다. 이름을 넣어서 접어 넣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納付日字 불일치 중에서 29萬 件 中에서 5萬 件은 지난 번에 했는데 24萬 件은 못했습

니다. 그런데 왜 뒤로 그 때 늘었느냐, 納付日字 불일치를 29萬件 中에서 그것을 일단 調査를 시작하다 보니까 무슨 問題가 발생이 됐느냐 하면 銀行에서 消印을 하는데 登録稅 告知書가 다섯 部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部分으로 되어 있고, 뒤에 두 部分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등록세 領收證을 내면 納稅者한테 주는 領收證이고, 두 장은 銀行에서 갖고 있는 領收證인데 하나는 銀行에서 갖고 있게 되고 하나는 區廳에다 通報하는 領收證이고, 이 두 장은 登記할 때에 登記所에다 내는 領收證인데 하나는 登記所에서 永久히 보존하는 領收證이고, 하나는 區廳에다 通報해 주는 이런 領收證입니다.

그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은행직원이 똑같이 소인을 다섯 군데에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月末이라 바쁘다 보니까 消印을 땡땡땡 이렇게 세 장하고 옆에다 미뤄둡니다. 그러면 그 옆에 미뤄 놓게 되면 쌓았다가 그 이튿날 消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틀씩 消印하는 경우가 있고, 土曜日에 받은 것을 月曜日에 消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銀行支店長이 자기들 慣例上 이렇게 2·3일을 늦는 것은 자기들 관례상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은행에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된다, 왜냐하면 그러면 똑같이 소인이 돼야지 내주는 것은 오늘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것만 너희가 2·3일을 늦게 消印을 해 버리면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銀行支店長들의 確認書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監査結果를 銀行監督院이라든지 銀行本店에 넣어서 일단 전 부 問責할 사람 問責하고 是正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銀行에서 錯誤가 있는 것은 金額 불일치가 10원

미만은 절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銀行에서. 그것은 뭐냐 하면 國庫端數法에 의해서 10원 미만은 절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산을 하려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절산을 시켰으면 내 주는 것도 절산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들 바쁘다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領收證에만 이렇게 갖고 그것을 내 주는 것은 그대로 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區廳에서 나중에 컴퓨터 入力을 시켜 보니까 銀行에서 넘어온 金額과 이쪽 登記所에서 넘어온 金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銀行에서 確認書를 받고 이것도 전부 떨어 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納付日字가 불일치한다든지 또는 納付金額이 일부 불일치한 이런 事項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넘겨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50萬 件 정도가 2次 監査分이 됩니다. 그래서 2次 監査分에 대해서는 25日부터 監査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橫領 및 不法 先登記, 이것을 搜查依賴한 것 말고 저희 內部的으로는 橫領, 不足 徵收에 대한 歲入缺損部分에 대해서 9億餘원의 채권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報告繼續)

감사관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끝으로 이 2次分 말고 지금 현재 저희 市長님께서도 한 번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今年度에 아까 監査室 職員을 한 60名정도 늘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그런 事項이 되

겠습니다. 그래서 市民들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한 登錄稅 手記分에 대한 監査事項으로 서울시에 稅務非理가 없다고 과연 믿겠느냐, 또 市民들께서는 일단 市政을 아직도 不信하는 그런 어떤 意見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分野는 모르지만 市民들이 낸 稅金을 領收證과 관련해서 公務員들이 着服을 하거나 橫領을 했다 하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불식되지 않고는 市政이 遂行이 안 된다 하는 이런 각오로 저희가 年中 계속해서 監査體制를 강화해서 登錄稅 이외의 部分, 다 그렇지만 自動車登錄稅, 그 다음에 取得稅 分野, 이런 分野까지 하여간 監査를 순번을 정해서 일단 監査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아울러 또 이 稅金分野에 대해서는 全 機關을 電算化시키고 機關 機關을 전부 연결하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면서 하여간 다른 分野도 是正이 되겠지만 稅金 관련분야는 일단 저희가 不正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한다는 그런 市政方針을 갖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說明이 좀 미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今年度에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監査官所管 業務에 대한 質疑와 答辯이 있겠습니다.

一括質問, 一括答辯式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십시오.

郭壽榮 委員, 質疑하십시오.

○郭壽榮 委員; 郭壽榮 委員입니다.

長時間 우리 監査官이 아주 소상하게 說明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自體監査하시느라고 監査官室의 모든 職員들이 노고가 상당히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2個 區廳의 登錄稅 自體特別監査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月 20日 1次 調査를 일단락한 것이 言論社나 一般市民의 시각으로는 이번 特監을 서둘러 마무리한 感을 가지게 되는데 특별한 理由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2次 監査對象의 의혹이 크다고 보는데 2次 監査의 對象과 計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번 政府合同監査에서는 231件을 摘發하였고 이번 監査에서는 440件을 摘發하였다고 하는데 물론 품만 들고 所得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기를 本委員은 바랍니다 만 問題는 量的인 摘發件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電算監査나 自體監査나 定期監査나 하며 그 이전에도 監査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事例가 여태까지 放置되었는지, 이번 監査로 모든 稅金非理가 정확히 摘發되었는가, 痼疾的인 腐敗, 構造的인 上下間 먹이사슬식 上納의 연계고리가 있다는데 이번 監査로 모두 밝혀졌는지, 더욱 중요한 것은 市民들의 血稅를 한 푼이라도 도둑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한 監査이어야 하며, 그러한 事例가 摘發되지 않기 위해서는 後續措置가 현실감각을 지닌 對策과 制度的 장치로 연계될 수 있는 監査이어야 한다는 監査內容의 質的問題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監査官의 見解와 對策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다음은 朴尙東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朴尙東 委員; 네. 朴尙東 委員입니다.

監査官 業務報告를 듣고 느낀 점도 많고 또 퀘션이 가는 점도 많습니다. 계속 監査官의 報告內容대로 今年度 監査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電算監査技法을 도입해서 監査하고 있는 內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監査官室 電算監査를 監査技法의 開發이라는 그런 美名 아래 實績 中 최대의 것으로 그 위용을 선전하고 또는 무척 긍지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물론 電算監査를 통해 그 동안에 推進內容을 알고 있으므로 더욱 발전시켜야 될 줄 알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問題 삼고 싶은 것은 電算監査網을 뚫고 엄연히 존재하는 公務員들의 非理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적은 業務分野에 대한 것은 電算監査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內容은 監査官室은 적은 業務分野에 대한 것을 잘 지켜주고 指摘을 해 줌으로 인해서 큰 分野에 대한 非理도 電算監査網을 통해서 指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집 한 채 짓는데 몇 個 機關에서 손을 내밀며 찾아 오는지 監査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집 한 채 지으면 建築과 연관되는 各 課에서 다 찾아 와서 음성적으로 괴롭히면서 역시 여러 가지 非理를 저지르고 있다는 內容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조그만 음식점 하나 運營하는 데도, 電算監査網을 피하는 하나의 非理입니다. 衛生業所와 관계되는 機關에서 다 와서 손을 내밀고 한다는 현실에 대해서 監査官께서 알고 계시는지, 이러한 事項은 生活 주변에서도 그리고 지난 번 TV 화면을

통해서도 최근 2·3차례 방영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이런 내용들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區廳 稅務公務員들이 하나의 非理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公務員들이 뭐냐면 稅金 逋脫方法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稅金을 逋脫하는 方法을 가르쳐 주고 賂物을 要求하거나 또 자신이 稅金을 減免할 權限이 있는 것처럼 公務員이 행세를 하고,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賦課하면서 賂物을 받는 惡質的인 事例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 번 서울地方檢察廳에서 그 事例를 아마 發表한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監査官께서도 기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電算監査를 통해서 摘發할 수 없는 稅金非理의 유형은 무엇이 있으며, 아울러 電算監査의 實態와 問題點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稅務公務員들이 取得稅를 깎아 주는 수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說明을 監査官께서 해 주셔야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非理事例를 摘發해 낼 수 있는 監査技法은 어떤 무엇이 研究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향후 電算監査의 發展方向은 무엇이며, 電算監査網을 無意로 만드는 個別的 稅金非理에 대한 根絶對策에 대해서도, 조그만 내용 같지만 바로 이러한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本委員은 너무 집 주변 民願人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質疑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후에 소상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다음은 金鍾雄 委員, 質疑하십시오.

○金鍾雄 委員; 그 동안 特監 準備 수고들 많았습니다. 本委員은 서울시 行政力이 어수룩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방대한 組織과 人力의 集結力은 가며이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特監에서 本委員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特監時 初期段階에 資料入力의 실수로 인해서 더욱 市民의 不信과 의혹을 산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特監 初期段階부터 이번 特監의 성격과 그 內容을 정확히 診斷하고 監査方向과 作業體系를 효율적으로 運營하였다면 1次 監査結果 나타난 非理의 內容으로 봐 市民들의 不信과 의혹은 훨씬 반감했을 것인데 監査官室의 監査活動이 박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新聞紙上에서 매일 報道되는 의혹의 記事, 또 추측 記事, 이러한 결과로 해서 監査結果는 어땠습니까? 政府 樹立 이래 최대의 監査人力과 裝備를 動員해서 효율적으로 作業體系와 言論發表 그리고 마무리 作業에 있어서는 짜임새 있게 運營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동안 애쓴 보람에 비해서 不信과 의혹의 눈길이 富川市와 仁川市 이상으로 더하지 않았는가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質問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市와 區 監査室의 不實監査와 特定部署의 長期勤務가 非理를 부추기고 있다는 指摘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監査官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課稅資料의 管理와 帳簿 정리 그리고 滯納稅에 대한 確認點檢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은 그 上納고리를 연상케 하는데 이에 대한 見解와 對策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이번 特監의 成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번 특감의 全過程에서 드러난 監査上의 問題點과 監査技法의 開發必要性和 관련하여 答辯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特監을 보고 本委員은 차제에 우리 監査官室 監査要員들도 中央政府의 監査院과 같이 아예 監査職은 一般行政業務로 돌아가지 않는 영구히 監査業務를 할 수 있도록 해서 監査敎育을 철저히 하고 各 分野別로 養成해서, 이 서울市の 방대한 行政事務를 監査한다는 것은 一般職에서 몇 달 내지는 한 두 해 하다가 또 一般職으로 돌아가고 하는 여기에서 오히려 監査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 주지도 못할뿐더러 監査要員의 專門性이 덜 된다고 보는데 차제의 監査官께서 서울市만은, 특별히 또 방대한 서울市이기 때문에 監査要員을 專門要員으로 하는 것을 한 번 과감하게 建議할 用意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見解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다음은 權寧斌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權寧斌 委員; 權寧斌입니다.

몇 가지 監査業務에 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鍾雄 委員께서도 指摘을 한 問題인데요, 평소에 本委員도 監査要員의 專門性和 身分保障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監査가 非理者나 非理를 저지를 監督官의 免罪符로 轉落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實例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一例를 들어서 監査를 하는 監査要員이 事前에 監査機密을 누설하거나 計劃을 누설하는 경우, 또 被監査者와 과거에 같은 部署나 또는 同鄉, 地緣, 血緣 이런 人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또 監査要員이 監査室에 한 2·3年 勤務하다가 部署가 바뀌면 部署가 바뀔 경우에 對備한 上級者에 대한 로비 내지는 本人의 處身을 위한 그런

기회로 삼는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監査는 하나나다, 오히려 監査를 했다는 理由로 非理가 감춰지고 덮여지는 이러한 監査 無用論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市民들이 税金監査를 열심히 한다고 하셨지만 不信의 눈초리가 아직도 가시지 않는 根本原因은 서울市長이 아무려면 자기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드러내서 자기 部下를 죽이려고 하겠느냐, 하나라도 縮小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데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本委員의 見解로는 外國의 예도 있습니다만 監査室은 獨立機關이 되어서 議會直屬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市長 밑의 傘下機關으로 있다 보니까 어떠한 狀況에서건 그런 연결고리, 연결의 의혹은 우리가 지워버릴 수가 없고,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監査의 시늉과 흉내만 내지 실질적인 監査는 하나도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 동안 本委員이 議員生活를 하면서 여러 번 監査를 의뢰했습니다만 監査結果가 한 번도 가슴에 와 닿은 적이 없어요. 아, 이것은 公務員의 陳述만 要領 있게 적어 왔구나, 監査를 의뢰한 사람의 意圖나 어떤 느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우리 監査官의 솔직하고, 國家百年大計를 생각하는 그런 表情에서 建設的인 그런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新聞에도 報道가 됐습니다만 淸溪川 下水道의 下水管 파이프가 다 不實하고 뭐 땀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1m 간격으로 瑕疵가 있다 이런 報道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下水가 下水處理場에 도달하기 전에 땅으로 다 흘러서 땅이 전부다 汚染이 됐다, 이런 것을 보면서 本委員이

느끼는 것은 역시 監査가 이제까지 주로 事後管理 側面에서 集中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部分, 또 어떻게 갑자기 크게 어떤 事故가 나지 않는 이런 部分에 대한 豫防監査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豫防監査에 대한 금년도 對策, 向後計劃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業務報告에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不實工事나 不實이 예상되는 그런 問題에 대한 設計分野, 施工關係, 竣工關係 計劃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전부다 구두탄에 불과한 것 같아요. 과연 실질적으로 監査室에서 이러한 不實工事を 그동안 어떻게 對處를 했으며, 또 금년에 어떤 구체적인 計劃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監査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이 있는지 그런 專門要員을 몇 名이나 확보하고 있는지, 設計分野 專門家, 또 施工·竣工分野의 專門家は 各各 몇 年 經歷에 실제 監査經歷이나 그런 專門分野에서 얼마나 從事했는지 상세히 答辯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業務報告에도 나왔습니다만 世界化概念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大統領께서 世界化라는 口號를 國政指標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口號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世界 속의 一員이고 一國家입니다. 時空을 초월해서 우리는 부단히 이웃나라와 交역을 해야 되고 榮動力이나 商品은 國境을 넘어서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時代의 흐름은 바로 우리가 世界化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러한 때에 世界化라는 口號가 꼭 필요한 것인지 疑問을 갖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 世界化라는 서울市의 입장 또는 이렇게 大統領께서 말하는 이런 世界化의 概念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

監査官 立場에서 答辯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 監査官室의 今年도 世界化 計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지금 目標로 하고 있는지 아까 業務報告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가 없이 그냥 世界化概念에 대해서 우리가 口號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目標와 實踐戰略을 세우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2월이 다 끝나가는 날입니다. 今年도 벌써 1/6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計劃이 없는 것인지, 計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監査業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12月부터 市長의 指示로, 特別指示로 3個月間 全監査業務를 마비시키고 監査室 全要員이 税金非理에 매달렸습니다. 과연 이렇게 1년에 1/4을 税金非理에 매달림으로 인해서 其他 餘他分野의 많은 監査業務가 있을텐데 이런 固有業務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이렇게 중단되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무리 市長의 下部機關이라 하더라도 市長의 下部機關이기 이전에 監査室 자체가 市長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야 될 그런 固有業務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問題點에 대해서 지난 3個月間 거의 全 監査業務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監査官은 대처하셨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또 아까 業務報告에서도 監査實績에 의한 監査要員의 勤務評價制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勤務評價한 實例가 있는지,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監査要員들이 얼마나 監査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監査의 內容이 판가름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말만 그런 것인지,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한 計劃을 가지고 있는지, 實例는 어떤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業務報告에 税金非理의 問題點을 여러 가지 나

열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의 見解로는 그 問題點 指摘이 너무 피상적이지 않느냐, 실제 작년엔 仁川 稅盜問題가 터졌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 때는 아무 어떤 對策도 강구하지 않고 서울시는 電算化되어 있다 그러면서 팔짱만 끼고 있다가 뒤늦게 몇 군데 區廳에서 稅金非理가 터지니까 모든 業務를 全廢하고 3個月間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制度上的 問題도 중요하겠지만 問題는 稅務職이 專門職種이라고 해서 한 職種에 너무 오래 專門性을 保護한다는 측면에서 오래 勤務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그리고 稅務職種에 勤務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着服한, 橫領한 金額을, 돈을 갖다 주변에 그 자리를 계속 保持하기 위해서 上納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常識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公務員 俸給이 薄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 이상의, 俸給 이상의 生活을 하는 사람으로, 生活費를 쓰고 남는 돈도 없을텐데 어떤 高價의 物件을 上納 받거나 대접을 받았을 경우에 분명히 그것은 不正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非理가 사실상 監査하기 이전에, 터지기 전에 이미 냄새가 나요. 同僚職員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술 살 능력이 없는데 高價의 어떤 술을 산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問題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外部에서 어떤 感知하기 이전에 內部에서 같은 同僚로서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問題點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권유와 制度의 改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問題點 提起에 그런 內容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 仁川 稅盜에서도 뭐 땅인가, 집인가 싸게 上級者한테 주고 여러 가지, 정말 골프장에 가면 돈을 얼마나 잘 뿌리는지 그 사람만 온다고 하면 골프장 全 從業員들이

공짜 돈 얻어먹는 맛에 아주 VIP 대접을 할 수 있는 한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사전 징후가 있는 것인데도 이런 問題點에 대한 改善策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다음은 姜晶錫 委員, 質疑하십시오.

○姜晶錫 委員; 姜晶錫 委員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地方化時代에 발생할지도 모를 事態가 염려가 되어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官治時節의 地方腐敗와 地方自治時代의 地方土着勢力과의 結託에 의한 地方腐敗와의 兩者를 비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일 수도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腐敗 中에서 地域有志들의 친목계 성격의 모이이나 前·現職機關長 모임과 연루된 非理에 대하여 여태껏 言論社나 公職社會 一員에서 言及한 바는 없다하더라도 否認할 수는 없는 일이며, 富川市와 仁川 北區廳 事件의 예와 監査院 監査結果 드러난 內容을 보더라도 登錄稅, 取得稅 橫領手法부터 人事 및 司正과 관련된 問題까지 돈을 뿌리며 腐敗를 뒤덮는 手法을 보면 이것이 어찌 富川·仁川에 局限된 일이며, 民選團體長의 時代가 개막이 된 후 어떠한 양상을 띠는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쉬쉬하고 있습니다. 제 밥줄 챙기기, 또 제 솔단지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監査院은 이에 對備하여 自體監査要員에 대한 懲戒權과 地方局을 新設하고 서울市 監査官室에서는 指導擔當官을 新設한 理由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本委員은 듭니다. 이들이 연루된 현재의 地方腐敗 實態를 調査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

시고, 또 조사한 바는 없다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監査官의 見解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官治時節 司直當局도 막지 못한 地方腐敗를 自治時代를 맞아 어떻게 감시해야 할 것인지 答辯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冠岳區에 대한 問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冠岳區에 靑少年會館이 지금 建立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靑少年會館이 竣工을 못한 채 현재 建物の 제일 중요한 보가, 보가 지금 벌써 竣工나기 전에 갈라져서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管理廳인 區廳長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監査官께서는 調査를 해서 앞으로 그 建物에 대해서 어떠한 措置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인지 소상히 알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다음은 權會榮 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權會榮 委員; 權會榮 委員입니다.

지금 여러 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로는 千百萬이 넘는 방대한 서울市에 5萬이 넘는 公務員이 事務를 보고 있는데 지금 監査官室의 人員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적지 않느냐, 또 그리고 지금 技術職에 대해서, 土木職이라든가 또 建築職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技術職에 대한 專門監査要員들이 있는지, 그것도 없으면 그 監査를 專門性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이번에 非理라는 것은 全國的인 현상이지, 뭐 어디 뿐만 아

나라 좀더 많고 적다 뿐인데 報道에 의하면 서울시 各 區廳에 稅務非理에 대해서 1萬 5,000件的 書類가 燒却되어 없어졌다 이런 報道도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이렇게 방대한 서울시가 事務引繼引受하는 것을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區廳長이 갈리면 전체 各係마다 事務引繼引受를 다 써서 해야 원칙입니다, 區廳長 하나만 바뀌어도. 局이 바뀌면 그 局別로 해야 되고 또 個人職員이 바뀌면 個人別로 해야 되는데 事務引繼引受 없는 데가 서울시입니다. 지금 條例上에는 係長 이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 係長 이상도 事務引繼引受를 정확하게 하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稅務非理뿐만 아니라 다른 件도 지금 상당한 숫자가 書類를 갖다 불태워 버렸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不利益이 돌아올 이런 責任이 오면 그냥 갖다 불살라 버려요, 그것은 내가 證據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으니 당장 뭐 하나 하나 대라면 대는데. 이것은 내가 市政質問에서도 두 번 씩이나 얘기를 했고, 또 과거에 李相培 市長께서도 그것을 是正하겠다고 했고, 또 2次 質問에서 內務局長이 是正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職員까지도 事務引繼引受를 하도록 하겠다, 또 常任委員會 와서는 다 그렇게 示達했다고 答辯을 했는데 제가 알아보니 한 件도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區廳에서. 딴 데는 모르지만 九老區廳이나 洞事務所에 물어 보니까 그런 것이 示達되어 내려온 것이 없다, 그런데 도 대체 理由가 뭔지, 職員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內務局의 課長들은 중요한 業務에 대해서는 區廳長이 事務引繼를 명할 수 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또 區廳長이 몇 해씩 있는 것이 아니고 길어야 1년 그렇지 않으면 몇 個月 있다가 또 바뀌고, 局長들도 2個

月만에 바뀌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이렇게 人事異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아래 사람들을 監督을 할 수가 있느냐, 거꾸로 오히려 아래 사람한테 물어야 그 아래 사람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하면 그대로 알고 있고, 또 서울市라는 데가 제가 보면 陳情書고 뭐고 個人이 내면 區廳부터 局長 이상이 그 書類를 읽어 보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읽어 본 예가 없어요. 읽지를 않아요, 그냥.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고, 모든 것을 그대로 그냥 아래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해 나가니까 一般市民이 알기는 係長보다는 係員이 낫다, 係員하고 상대하는 것이 낫다, 그 다음에는 係長이다, 그 다음에 課長이다, 그 다음에 局長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 위에는 얘기 해보나 마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一般市民까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서울市에서도 市政質問에서 자기네가 答辯을 한 것도 분명히 잘못했다고 하고 是正하겠다, 이런 請願에 대해서도 아직도 안하고 앉아 있어요. 그럼 지금 委員들이나 當事者한테는 또 議會에다 通報한 것과 區廳에다 示達한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市에서 알기를 市議員들까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바지저고리로 알고 앉아 있다고요. 자기네 上官같은 줄 알고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市民하고 직접 우리가 절충을 하고 相對를 수시로 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어 얘기를 하면 市政開發研究院에 지금 用役을 줘서 앞으로 서울市에 대한 基本計劃을 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協議를 거쳐서 해라,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常識적으로 생각을 해도 協議對象이 되지 않는 機關인데 그런 公文을 냈다고요, 區廳에다. 요전에 내가 그것을 質疑하니까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모르고 했다 이렇게 答辯을 했는데 그래 補完質問을 하려

고 그랬더니 하도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좀 망신을 주려다 그냥 말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이러 이런 것은 바로 못한다 그러고 是正을 하겠다 이렇게 答辯을 해 놓고도 아직도 그대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任期가 다 되어 가는데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뭔가 不信任案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告發을 하든가 두 가지 중에 結末을 내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하는 사람인데 또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監査官께서는 이런 것을 챙겨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급하면 書類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이거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너무 市議員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市議員들의 말이 바로 市民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수시로 市民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그 市民 中에는 뭐 知識이 많은 사람도 있고, 專門家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對話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市議員들이 專門家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는 이런 행동은 반드시 고쳐야지,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추궁을 하면 거꾸로 그것을 誤解를 하고 앙심을 먹고 故意的으로 해 줄 것을 안해 줘요. 市議員도 市の 課長들이나 係長한테 가서 조져야 됩니까? 이런 것을 좀 監査官室에서 다시 調査를 해서 그 결과를 通報해 주시면 믿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결과가 없으면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은, 任期라고 해야 한 3個月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가 選舉期間이니까 소용도 없고. 이왕에 아무것도 안할테니까 마지막에 다만 하나라도 고쳐 놓고 가야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는 不信任 아니면 告發을 할테니, 반드시. 그것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

저히 해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다 施行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그런 것을 좀 알아서 밝혀 주시고, 會議錄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 答辯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議會에 通報한 것 다르고 區廳에 내 보내는 通知 다르고,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局長은 그냥 바지저고리고 課長이 마음대로 한다든지 係長이 마음대로 하면 그 局長이 나와 答辯할 것도 없고, 課長이나 係長한테 가서 쫓아다니며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個人 일도 아니고 地域의 일인데 우리가 따라 다니면서 사정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좀 아주 철저히 調査해서 書面으로 答辯해 주세요.

○監査官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權會榮 委員; 그리고 1萬 5,000件에 대해서는 어떻게 處理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요전에 뭐 野黨議員이 調査權發動을 하려고 1/3 同意 받아서 調査權發動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간에 議員으로서 4年 동안 이런 불미한 일이 생겼는데 調査權發動 한 번 못하고 나간다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同調했습니다, 調査權發動해야 된다. 4年 동안 멀건이 등신모양 앉아 있다 나가려면 그거 하나마나지, 그러니까 서울시議會 次元에서도 일단은 각 區廳에 모든 것을 좀 調査權發動을 해서 調査를 해서, 이런 아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監査官께서는 전체적인 모든 問題에 있어서 是正할 責任이 있으니까 좀 그것을 書面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다음 質疑는 韓仁洙 委員, 해 주십시오.

○韓仁洙 委員; 韓仁洙 委員입니다.

우리가 民族이 世界로 뻗어 나가서 世界化 속에 우뚝 서겠

다는 각오 속에 世界化에 副應하는 監査를 충실히 履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95年度 主要業務計劃 報告를 받고 먼저 本委員은 監査官室 全職員에게 진실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監査官室에서는 그 동안 1,900대의 컴퓨터와 3,500名の 入力要員 그리고 843名の 監査要員들이 投入된 監査는 市民의 税金非理에 대한 의혹과 不信을 씻고자 하는 서울市의 意志를 보여 준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1次 監査에서 일부 職員들과 法務士들의 個別的 非理는 있 으되 富川市나 仁川 北區廳의 경우와 같이 公務員들과 法務士들과의 組織的 非理는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기도 합니다만 과거 税金分野에서는 왜 摘發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非理가 税金分野에 限定되어 있지 않고 각기 곳곳에 殘存해 있는 것인지, 監査官室에서 摘發되기 전에 거의 言論社에서 各 分野의 公務員들의 不正腐敗가 먼저 報道된 것을 더욱더 監査에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要請하면서 特監에 관련하여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서울市 登錄稅 自體特別監査를 1次로 마감한 결과 分析된 內容으로 봐 税金非理實態와 監査時 問題點 그리고 向後 監査方向과 對策에 대하여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各種 非理는 上納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보면서 領收證과 各種 公簿對照 등을 통해 賦課와 徵收上的 非理를 알고 있을텐 데 이번 監査에서 이러한 事例가 얼마나 摘發됐고 앞으로 어떻게 對處하실 것인지, 計劃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95年 2月 3日부터 우리는 交通滯症問題로 10部制 運行을 실시하고 또한 버스專用車線制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終日專用車線制와 時間制專用車線制에 대한 車線制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관찰해 봤을 때 너무나 問題點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問題點을 監査官님께서는 點檢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 終日專用車線制를 실시하는 곳 중에 出退勤時間을 除外한 一般車線에는 2·3名 정도만을 태운 채, 버스 終日專用車線制라고 해서 버스에 한 2·3名만 태우고 車線을 질주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交通滯症을 誘發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우측차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택시에게도 時間制專用車線制를 유동적으로, 텅텅 비어 있는 終日專用車線制와 버스專用車線制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調査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監査官님께서는 앞으로 調査에 대한 計劃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버스專用車線制 團束하는 團束要員은 제가 알기로는 전자에 보면 防犯隊員으로 勤務하던 사람들이 전부 差出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交通法規에 대해서 전혀 門外漢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분들로 하여금 團束하는 과정에 市民들과 마찰이 자주 있기 때문에 지금 主要道路에서는 여러 가지 問題點들이 많이 誘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交通法規에 대한 敎育을 실시할 그러한 團束要員들의 準備는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交通滯症에 대한 그러한 問題點에 대해서도 監査官님은 적극적으로 調査를 하셔서 貫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다음은 白中元 委員님, 質疑하십시오.

○白中元 委員; 白中元 委員입니다.

먼저 李相鎭 監査官의 博士學位 授與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特監에 관련했던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市는 登錄稅 自體特別監査를 2月 20日로 1次 特監을 마친 바 있습니다. 이번 監査는 大韓民國 監査가 실시된 이래 최대규모의 人力과 裝備가 動員되어서 50餘日間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22個 區廳의 監査結果 政府合同監査에서 드러난 231件 外에 440件에 4億 6,000餘 萬원의 登錄稅非理를 追加로 摘發하였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거의 稅務分野監査와 이번에 실시한 自體特別監査와는 監査規模와 監査技法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이번 特別監査 이전에 실시한 稅務分野監査는 언제 있었으며, 摘發內容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非理를 摘發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取得稅領收證은 있는데 登錄稅 領收證이 없는 경우와 收納簿에는 없는데 領收證이 있는 경우, 그리고 調査가 불가능하게 된 廢棄된 領收證의 경우에 대하여는 어떻게 處理하실 計劃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로 이번 1次 自體特別監査結果의 分析內容을 第2次 特別監査計劃內譯 稅金非理 根絶을 위한 向後對策과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檢察 搜查結果에 의하면 일부 區廳의 稅務公務員들이 稅務非理를 눈감아 주는 條件 또는 물 좋은 擔當地域이나 勤評을 좋게 받기 위해 每月 定期的으로 또는 不定期的으로 勤務評定權을 가진 課長과 擔當區域指定權을 가진 係長에게

賂物을 上納하였다고 합니다. 下級者는 남들 다 上納하는데 나만 안하면 損害를 본다는 생각에서 上司들은 당연히 떡고물을 기대하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稅務職公務員들의 非理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上納고리가 있는 이상 稅務非理는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稅務職員들 모두가 해당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러한 非理가 稅務分野에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政權이 바뀔 때마다 定期的으로 수시로 監査가 있었습니다만 根絶되지 않고 있는 理由가 있을 것입니다. 그 理由를, 病名을 알아야 醫師는 投藥을 하거나 手術을 할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監査官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根絶될 수 있는 處方은 없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

94年度에 上納고리로 인해 摘發되고 措置한 10大 不條理分野의 現況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上納고리를 자르기 위한 對策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措置할 것인지, 上納고리를 除去하기 위한 監査官의 見解와 對策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再開發事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 北部圈에는 再開發을 해야 될 地域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再開發을 하는 地域에는 民願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民願은 곧 生活權 내지는 財産權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非理가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아주 절차적이고 適法하게 그리고 公正하게 이렇게 業務가 推進되어 나가면 管理處分이라든가 또는 마감단계에 이르기까지 큰 非理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關係部署 내지는 關係公務員들이 처음부터 이를

소홀히 생각하고 放置하는 가운데 非理가 싹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再開發하는 地域마다 事前에 指導 監督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制度的으로 챙겨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에 實施하는 地區부터라도 住民組織, 承認, 總會, 業者 選定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어서 착수 후에 분쟁과 갈등, 후회가 없도록 調査하여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京畿道 內에 自治團體長 分析 및 動向 때문에 많은 物議를 야기시켰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난 歷史上으로 볼 때 慣例적으로 이렇게 실시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全國 事項이 아닌지 또한 서울特別市에는 이러한 事項들이 없었는지 이것을 所信 있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赤十字會費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赤十字會費는 지금 市民들 納付過程에서 많은 疑問點과 또는 不滿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監査를 해 보셨는지 아니면 금년도 納期分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點檢을 해서 앞으로 改善點이라든가 赤十字會費로 인한 어떠한 不條理가 발생하지 않도록 特別對策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禧柱; 그러면 質疑할 委員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補充質疑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權寧斌 委員; 아니 赤十字會費와 相關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까.

지난 번 阿峴洞 가스 事故現場에 赤十字에서 주는 라면이 有效期間이 지나서 그것을 먹고 배탈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全 市民들이 정말 誠金으로 내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안 주는 것이 낫지요. 버려야 될 廢棄物과 같은 食品을 災害民들한테 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거기 당한 사람들에게, 배탈이 나서 도로 가져가라 이래서 가져간 事例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한 번 좀 調査를 보세요.

○委員長 朴禧柱; 그러면 答辯準備를 위해서 監查官께서 時間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3時 30分은 어떻습니까?

○監查官 李相鎭; 2時에.....

○委員長 朴禧柱; 그럴까요. 14時에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28分 會議中止)

(14時 01分 斷續開議)

○委員長 朴禧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續開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監查官은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監查官 李相鎭; 말씀해 주신 委員님들 순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郭壽榮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1次 登錄稅 自體特別監查를 지난 2月 20日 서둘러 마무리한 感이 있는데 그 理由와 2次 監查對象 및 計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두 번째는 그 동안 많은 監查에도 불구하고 이런 類似한 事例를 摘發하지 못한 理由와 向後 地方稅非理對策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2月 20日에 실시한 1次 監査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둑 맞은 稅金을 찾는, 그러니까 橫領, 着服 등 이런 도둑 맞은 도둑놈을 찾는 방향에 주력을 했고, 2次 監査는 流用이라든지 其他 적게 徵收한 部分이라든지, 이런 部分으로 약간 낮은 部分으로 나눠서 監査를 했습니다. 그래서 1次 監査를 죽 52萬 件에 대한 것을 전부 추적을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納付日字 불일치같은 경우에는 非理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무척 件數는 많고 그래서 5萬 件 정도 하다가 2次分으로 돌렸고, 다음에 銀行 領收證은 收納簿에는 있는데, 다시 말하면 現計 收納簿에 있는데 銀行 領收證이 없는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1件도 빠짐 없이 전부 調査를 했더니 그것이 銀行 原簿하고 일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部分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까 業務報告에서 잠깐 말씀드린 病院가 안 맞거나 또는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對照 못해서 나중에 姓名 入力으로 나온 그 部分을 뒤로 돌리는 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300名이나 되는 人員으로 監査를 계속하고, 실지 監査要員만, 調査要員만 800名을 投入하다 보니까, 또 期間이 50日이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各 區廳의 業務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장을 받는다는 그런 輿論도 있었고,

또 監査要員들이 아침 8時半부터 밤12時까지 매일 이렇게 公休日도 없이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완전히 監査要員들도 솔직히 말하면 아주 피로해서 도무지 業務遂行이 어렵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事項으로 해서 일단은 도둑 맞은 그런 分野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해서 대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1次分에 대해서는 終了를 하면서 일단 發表를 하고, 2次分, 말씀드린 약간 어떤 도둑 맞은 嫌疑는 없으나 일종의

流用이라든지 其他 이와 같이 金額上으로 非理가 있으나 非理度가 좀 낮거나 아니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런 部分은 몰아서 뒤로 넣어서 일단 終了를 1次로 하면서 1件도 빠짐없이 2次에도 계속해서 終結을 할 그런 計劃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監査를 하면서도 이런 非理類型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저희 監査要員들 전체에, 또 監査하면서 상당한 그런 어떤 自省을 저희들이 하면서, 뭐 責任回避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상을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대개 이제까지는 2年 週期로 綜合監査를 機關別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監査班을 編成해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보름간 監査를 나간다, A라는 區廳을 나갔다 그러면 그 分野가 20個分野가 됩니다. 그러면 擔當職員 1名 내지 2名을 稅務면 稅務에다 배치해서 15日內 이렇게 監査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自體行政監査에 어떤 限界라고 그럴까요, 갖다 놓은 臺帳을 갖고 이 臺帳을 보면서 書類를 맞춰 보는 이렇게 해서 맞으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監査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監査는 이것이 일반적인 監査라기 보다는 特別監査로써 搜查的인 성격을 띤 監査라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各種 臺帳이라든지 領收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電算에다 入力을 시켜서 이것을 갖다 프로그램을 107個나 開發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해서 전부 뽑아 놓으니까 정말 이 잡듯 전부 밝혀서 監査를 하는데 평소에 이런 監査를 앞으로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아직도 자신을 못합니다.

단 하나 여기서 敎訓을 얻었다는 것을 監査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區廳에 가면 非理 의혹이 있는 어떤 分野 하나를 집어서 이와 같이 어떤 電算도 動員을 하고 해

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監査를 해서 非理 類型을 찾아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全 機關에 확산을 시켜서 앞으로 非理를 차단시키는, 豫防을 하는 이런 監査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도에 綜合監査를 줄이면서 집중적인 그런 脆弱分野를 뚫고 들어가겠다 하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意味로 말씀드린 점을 理解를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郭委員님이 말씀하셨지만 上下間에 어떤 上納 연결고리는 끊을 수 없겠느냐, 이것은 行政監査로 쓰는 사실 그 자체를 監査한다는 것은 限界性이 있습니다. 단 하나 저희가 이와 같은 監査를 철저히 하고 職務監察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暗行點檢을 수시로 이렇게 실시를 하면서 그런 非理分野에 대한 것을 조여 들어가면 그런 것이 자연적으로 막아지지 않겠느냐, 저희가 암암리에 個人的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 事項을 行政監査로, 그렇다고 搜查같이 데려다가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調査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직접적으로 監査로써는 밝히기 어려우나 하여간 그런 것을 끊는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가 職務監察과 行政監査를 겸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朴尙東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電算監査網을 뚫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듯이 작은 業務分野가 監査에서 除外되는 感이 있는데, 예를 들면 建築民願에서 집 한 채를 지을 때 여러 部署에서 여기를 들르는 이런 경우라든지 또 衛生業所 非理나 이런 稅金 逋脫方法 등을 어느 일면에서는 公務員들이 의도적으로 가르쳐 주는 그런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問題點과 관련해서 電算網實態 및 問題

點, 稅務公務員이 取得稅를 減免해 주는 方法, 向後 電算監査 병행 등에 대해서 說明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電算監査를 통해서 摘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稅務非理의 問題點이라든지 對策發展方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朴委員님께서 指摘하신 바와 같이 建築, 稅務, 衛生 등 우리 生活 주변의 작은 不條理가 根絶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희 자신들도 그런 事項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이 問題에 대해서 剔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市政業務 中에서 또 電算化되지 않았거나 되고 있는 것은, 지금 進行되고 있는 것은 土地管理, 住民登錄, 稅務業務 등 지금 현재 6個 分野는 完了가 되었고, 3個 分野는 지금 作業 中에 있고, 이번에 登錄稅까지 마저 3月까지 완전히 完了를 시키면 지금 나머지 分野가 아마 5個 分野 정도가 있는데 財務局에서 96年, 내년까지 이것을 모두 電算完了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業務의 電算化가 非理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는 완벽한 制度겠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問題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入力이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科學的으로 이게 處理가 됩니다. 그런데 入力前 非行, 예를 들어서 入力시 킬 때 잘못 시키는 것, 또 예를 들어서 入力이 出力이 된 다음에 그 資料管理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分野에 대해서는 問題點이 있는 것을 저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든 分野를 電算化시키면서 電算化되어서 處理되고 있는 事項에 대한 監査도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問題가 提起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

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分野에 대해서는 저희 監査室에 이번에도 電算要員을 며칠 T/O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웬만큼 電算處理하는 職員들 갖고는 그 事項을 막을 수 없는 그런 事項이기 때문에 그 職員에 대해서는 專門教育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電算化되고 있는 事項에 대한 그런, 또 電算化시킬 때 잘못된 것을 電算으로 추적하는 그런 方法 프로그램 開發이라든지 이런 問題를 해서 앞으로 科學化시키는 이런 行政體制에 非理가 없도록 최대한도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電算監査를 통해서 摘發할 수 없는 稅務非理를 발굴해서 改善해 나가는, 이것도 委員님께서 참 좋은 指摘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特別監査를 하다 보니까 이런 問題가 있었습니다. 다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問題가 提起가 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에 入力한 것이 銀行 領收證, 通報書 그 다음에 登記所 領收證通報書を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銀行 現計 收納簿를 入力을 시켰고 그러면 登錄稅를 안 물린 것이 있지 않느냐 해서 取得稅 收納簿를 또 入力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그러면 取得稅에도 故意的으로 登載를 시키지 않고 銀行에서 넘어온 것도 收納簿를 作成하지 않고, 銀行領收證도 없애고 登記所 領收證도 없앤 경우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質問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불가항력입니다. 찾아낼 方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研究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부 없애는, 설마 그런 非理公務員이 있겠느냐 하는 긍정적인 假定도 있을 수 있겠는데 나쁜 意味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런 質問도 提起될 수

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研究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金鍾雄 委員님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監査結果에 나타난 非理는 市와 區의 不實監査와 長期勤務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對策, 두 번째는 帳簿 정리나 滯納 정리가 잘 안 되고 방치됨으로써 上納고리 의혹이 있는데 그 對策, 이번 特監의 成果, 監査上 問題點의 根絶 對策 그리고 監査職 公務員은 監査業務만 專任할 수 있는 그런 專門化 用意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長期勤務 稅務職公務員에 대한 循環勤務制는 지금 市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실시할 計劃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11月 5日 3年 이상된 稅務職公務員 384名에 대해서 전부 區間 이동을 지난 번에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는 稅務職이 新設이 되다 보니까 A 區廳에勤務하는 職員들이 B 區廳으로 가면 또 稅務課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같이 완전히 다른 部署로 배치하는 것은 현재로 불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監査를 하다 보니까 問題가 되는 것이 賦課하는 職員들이 徵收하는 것과 같이 되어 있으니 問題點이 있지 않느냐, 이게 問題點으로 발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江南區廳이 우선 示範的으로 施行을 했고 지금 市에서 組織改編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賦課와 徵收를 구분을 하고 거기에다 稅務管理를 하나 넣어서 稅務管理果, 賦課果, 徵收果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이제는 賦課와 徵收를 떼어서 現札을 직접 取扱하지 않고 연결이 안 되도록 이렇게 改善을 하고 있고 이 分野에 대해서는 各各

로테이션을 자주 이렇게 一定期間을 정해서 循環補職시키도록 그렇게.....

○金鍾雄 委員; 賦課에는 擔當公務員의 裁量權이 최소한 없.....

○監査官 李相鎭; 그래서 그 分野에, 그것도 저희가 對策案으로 2次 監査가 끝나면 아직 저희 內部的인 案으로만 잡고 있는데 課標를 갖다 어떤 것은 實際價格으로 하고 어떤 것은 뭐 政府 告示價로 하고 이렇게 해서 課標가 各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一元化시키는 作業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稅率調整도 일단 合理的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案으로 가지고 있는데 2次 監査 끝나면 建議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次 監査結果 440件 4億 6,578萬 5,000원이 摘出되어서 아까 業務報告에서 말씀드린 搜查 의뢰하고 財産 債權押留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次 監査가 終了되면 아까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시다만 저희 憲政史上 地方稅分野를 갖다가 이런식으로 5年치를 갖다가 全 機關을 다하는 1,000萬 件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稅政資料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實施背景부터 監査 나중에 終結해서 끝나는 것 모든 과정을 다 수록해서 이것을 白書로 發刊할 그런 計劃으로 있습니다. 그래 白書를 發刊해서 市民들에게도 公開를 하고 물론 市議會에 저희가 바로 提出을 해서 報告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各 地方都市, 中央部署에도 전부 나눠 줘서 이것이 하나의 稅政改革의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資料를 提出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監査職에 職列 新設問題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職

列關係는 公務員法에 明示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市 단
독으로는 施行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번 監查
院에서 各 部處의 監查官會議 때도 이 問題가 新設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한 가지 問題點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監查機能이 그 機關에 대한 不條理剔抉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에 대한 意味가 첫째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機關長에 대
한 指揮權 확립도 상당히 무시 못합니다.

예를 들어 民選區廳長이 됐다 그럼 民選區廳長 밑에 있는
區廳 監查室에서 區廳長 指示事項이 제대로 履行이 되고 있
느냐, 市民들의 어떤 民願事項이 제대로 接受가 되어서 施行
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監查를 해서 機關長에 대한 指揮
權을 튼튼하게 확립시키는 意味가 있는데 예를 들어 獨立的
으로 이것을 해서 어떤 監查院 所屬으로 한다든지 다른 데로
되면 약간의 그 問題도 檢討는 해야 되는 事項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問題를 가지고 中央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
고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問題는 그러나 監查權에 대한 어떤 그것이 市民
입장에서 또 市議會 입장에서 보면 제대로 이것이 뭔가는 되
어서 이것이 施行이 되어야만이 行政發展이 되지 않느냐 하
는 그런 問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委員님들 뜻을
저희가 알고서 關係部署와 협의할 때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權寧斌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件이기 때문에 한건 한건 報告를 드리겠
습니다.

○金鍾雄 委員; 아니, 그 專門職하는 그 問題는 問題點이 없
습니까?

○監査官 李相鎭; 專門職인데요 그것이 公務員法에, 職列 改正問題는 公務員法에 되어 있기 때문에 市 단독으로는 職列 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公務員法을 改正하는 問題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總務處에서 하는데 이 監査職 職列問題는 監査院에서 상당한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監査院에서 지난 번에 論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中央部處와 協議할 때 같이 그런 問題를 協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自體監査의 限界를 극복하기 위해서 監査官室을 議會 直屬으로 독립적으로 運營할 問題는 없으나, 솔직할 答辯을 한 번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좀 전에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事項과 조금.....

이게 지금 스웨덴에서 옴부즈맨制度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制度인데요 스웨덴에서는 議會의 調査官같이 되어서 직접 行政部署에서 處理하는 것을 이제 議會에 接受가 되어서 議會에서 調査하는 그런 制度, 이것도 사실은 政府組織法 또 職列新設制, 이런 問題인데 아까 金委員님 말씀으로 일단 같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市 단독으로 결정할 問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淸溪川 하수박스 老朽로 누수되어서 地下水가 汚染되는 報道와 關係해서 事故가 나는 그런 分野에 대한 豫防監査의 向後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年度에는 세 번에 걸쳐서 事件 事故가 나는 어떤 그런 不實工事라든지 이런 分野에 대해서 監査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摘出된 事例를 말씀드리면, 資材費를 二重計算하거나 불필요한 어떤 設計費를 計上한 경우, 그 다음에 設計圖書보다 不足施工하거나 屋上防水를 不實하게 施工, 保溫措置 소

홀, 표기 잘못된 圖面으로 施工, 또 不足施工되었는데도 竣工을 한 事例, 規格未達 資材를 사용하거나 責任監理者가 工事監理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 또 실험실을 不實하게 運營하거나 실험을 소홀히 한 事例, 無資格者에게 下都給을 주거나 都給限度를 초과해서 下都給한 事例 이런 것이 摘出이 되었습니다. 摘出된 業體는 33個 業體가 있습니다. 또 不實監理者는 5個 業體가 있었구요. 또 財政上 措置는 10億 9,185萬 4,000 원이 이제 還收를 했습니다. 關係公務員 63名이 있어서 問責을 했고, 改善은 302件을 改善措置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不實檢査의 要因이 되는 不實設計施工, 品質管理 소홀, 不法下都給關係 등에 力點을 뒀서 監査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監査 人力에 대한 技術職 確保問題는 10年 내지 20年 現場經驗이 있는 이런 職員 中에서 資格證이 있는 職員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差出을 해서 지금 현재 土木 4名, 建築 2名, 電氣, 機械, 林業, 地籍 1名씩 해서 지금 10名이 勤務를 하고 있는데 調査課에다 技術係를 지금 新設하고 이것을 확대해서 금년도에 技術監査擔當官을 할 그런 計劃으로 있기 때문에 不實分野에 대해서는 철저히 監査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世界化의 서울市 立場과 概念은 무엇이며, 監査官의 어떤 世界化의 目標計劃이랄까 概念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個人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概念으로 世界化가 그 동안 나왔었습니다. 뭐냐 하면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地方化, 그 다음에 또 이제 글로벌리제이션 해서 地球村化와 그러더니 이제

그것을 합해서 글로컬리제이션이라고 그래서 地球村 地方化로 이렇게 되어서 이게 우루과이라운드와 연계해서 되더니 요사이 WTO 世界貿易機構가 되면서 지금 또 世界化가 이렇게 되어서 인터널리제이션이라는 用語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世界化, 國際化는, 世界化는 같은 경쟁속에서 이렇게 되는 이런 概念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國際化라는 것은 上·下階層으로 概念定立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世界化를 한다는 것은 이웃과 함께 동반관계로 해서 이제는 작은 概念으로 나가자는 이런 概念으로 해석이 되어야 이것이 올바른 概念이 아닌가 저는 個人的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言論이라든지 其他 전부 報道되고 있는 이런 것으로 해서 概念을 좁혀서 定立을 한다면 先進國家에 대한 비교 우위와 경쟁력을 확보를 해서 變化와 發展을 기하는 創造的, 未來的 改革으로써의, 이제 차세대에게 자랑스러운 祖國을 물려주는 國家的 비전이자 發展目標이다 이렇게 報道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事項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좀더 구체화시키는 이런 方向으로 우리 市에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 번에 計劃을 樹立하고 있는 部署에다 저희 입장에서 한 번 意見을 開陣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監査官室 입장에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우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市政의 어떤 計劃되고 있는 경쟁력 提高와 生産力 극대화, 市民 意識의 先進化 政策을 위한 그런 推進事業을 樹立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樹立되고 推進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點檢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불합리한 各種 行政規制 緩和施策 推進事業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권력형의 어떤 行政規制는 강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린벨트가 훼손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권력형의 그런 훼손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된다면 그것을 内部的으로 강력하게 이것을 規制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一般庶民들을 規制하는 것은 앞으로 합리적으로 緩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狀況으로 해서 推進進度를 點檢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監査要員들도 앞으로, 委員님들께서 豫算 承認을 해주셨습시다만 海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나가서 많은 그런 것도 저희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地方都市와도 저희가 비교해서 도입을 하면서 결국 市에서 推進하고 있는 그 計劃이 합리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느냐 하는 事項을 결국은 철저하게 點檢을 하는 이것이 저희 監査官室의 금년도의 世界化에 맞는 그런 어떤 저희의 目標이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난 해 말부터 監査業務를 마비시키다시피 하면서 3個月間 全 監査要員이 稅務에 매달려 왔는데 固有業務에 지장이 없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登録稅 特別監査는 12月 29일부터 2月 20일까지 50日間 실시됐었습니다만 그전에 政府監査가 또 한달 있었고 그 전에 저희 自體로 一週日間 있었고 해서 지금 우리 權委員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로 한 3個月 가까이 監査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年末 監査에 대한 어떤 決算정리라든지 其他 또 1월에 저희가 越冬期의 어떤 수급이라든지 또는 高地帶의 빙판,

主要業務 推進事項 點檢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미진했던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監査官室 要員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動員된 것이 아니고 監査課에 1係個에 한 10餘名, 調査課 1係個 10餘名, 民願課에는 民願處理이기 때문에 2係個에 한 20名은 殘留시켜 놓고 나머지는 投入을 해서 그 職員들이 業務處理를 두 사람, 세 사람 못까지 해서, 왜냐 하면 일선에서 監査하는 職員들이 밤 12時까지 斷續監査를 하기 때문에 內勤職員들도 뭐 밤 12시까지 계속해서 낮에는 調査活動하고 밤에는 와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해서 큰 지장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이제 監査가 1段階 終了되고 縮小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돌아온 職員들이 그 동안 遂行하지 못했던 本人의 業務를 總點檢을 해서 미진한 部分이 있었으면 그런 事項에 대해서 전부 補完을 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業務報告에 의하면 監査院의 實績에 따라 勤務評價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實績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앞으로의 計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監査要員은 나가서는 監査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監査에 대한 裁量權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內部的으로는 어느 部署보다도 位階秩序라든지 內部統制가 가장 강한 데가 監査部署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本人들이 나가서 監査한 事項은 전부 저희 監査1係에서 분석을 해서 實績評價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個人別로 監査日數, 監査에 대한 어떤 物量調査,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結果措置까지 點檢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實績評價에 반영을 하고 있고 비근한 예로 이번에 特別監査에서 1億원 이상 도둑 맞은 稅金을 찾은 職員에

대해서는 特別昇進을 이번에 要請을 할 計劃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職員 한 30名에 대해서 表彰計劃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外國 갈 때에 우선적으로 두번 外國을 갔었습니다만 그 때도 評價해서 우수한 職員을 우선적으로 해서 外國 갈 때도 優先權을 줬고요, 앞으로도 이런 方向으로 해서 저희 職員들이 좀더 활발하게 보람 있게 勤務할 수 있도록 與件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權委員님의 마지막 質問이 되시겠습니다.

業務報告에 의하면 稅金非理 問題點이 피상적이며, 稅務職이 專門職種이라서 과보호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분수에 맞지 않게 호화생활을 하는 職員에 대해서 內部에서 感知할 수 있었을텐데 事前에 권유와 制度改善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稅務非理 問題點에 대해서는 手記分特別監査結果에서도 報告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要約해서 했는데 좀더 여기에 대한 問題點이 우리 内部的으로 行政的인 問題點, 職員들의 業務處理에 대한 問題點, 그 다음에 登記所의 問題點, 銀行의 問題點, 法務士의 問題點을 전부 저희가 발췌해서 자세하게 要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監査結果 報告로 해서 별도로 提出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稅務職種이라서 과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면은 없습니다. 단 監査를 하면서도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事項을 설령 발견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한 사람을 잡아서 억지로 껴매는 이런 식의 監査는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 監査의 基本方向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과보호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번에 稅務問題는 하여간 市民들이나 全國적으로 全國民들이 상당히 흥분했던 그런 事項이고 정말로 公務員이 市民들이 낸 이런 稅金을 이와 같이 도둑질한 이런 일은 전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基本的인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2次 監査에서도 하여간 뿌리를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화생활을 하는 이 職員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지금 현재 司正이 그 동안에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職級에 맞지 않고, 그런 어떤 자기 身分에 맞지 않게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주위에서 빈축을 사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女子關係가 紊亂한 사람이라든지, 其他 여러 分野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特別監察活動을 하고 있고요, 또 監査에서도 感知된 그런 어떤 事項에 대해서는 그 職員에 대해 철저히 이 分野에 대해서 監査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職員이 5萬이나 넘는 많은 職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餘名 조금 되는 職員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미진한 면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 分野에 대해서도 보다더 철저히 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일단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追加로 말씀하셨던 赤十字社에서 麻浦가스 事故의 災害民들한테 라면 腐敗된 것을 支給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는 그런 事項입니다, 전. 그래서 이 事項에 대해서 한 번 追後가 되겠습니다만 調査를 해서 이런 事項에 대한 事項을 赤十字社에 일단 通報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警告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姜晶錫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自治時代를 맞아서 地域有志들 또는 前·現職機關長들과 연루된 土着非理가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根絶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地方化時代를 맞아서 地域에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有力人士들이 관련되는 土着非理問題가 얼마 전에 紙上을 통해서 仁川에서도 한 事件이 있었던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靑瓦臺에서도 이 問題를 한 번 監査官 會議에서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말씀이 계셔서 일단 저희들도 파악을 했었습니다만 서울에서는 그 때 당시에 저희가 파악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렇게 큰 土着非理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는 報告된 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地方에서는 여러 事項이 아마 그런 事項이 있었다고 저희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왜 그런 事項이 별로 없느냐 하는 事項은 서울은 아무래도 무슨 言論機關이라든지 其他 各種 機關 또 서울에 있는 民度라든지 其他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무슨 行政을 마비시키거나 그렇게 지장을 주는 土着非理 이런 것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이런 地方化時代가 발전되려면 이와 같이 어떤 特惠性이 있는 地域有志들의 이런 어떤 土着非理는 없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事項에 대해서도 저희가 對民部署 公職者들을 우선 職務監察 또는 情報活動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하고 또 미연에 防止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冠岳區의 靑少年會館의 問題에 대해서 말씀이 계

셨는데 이것은 지난 年末, 92年 12月 31日부터 지난 年末까지 걸쳐서 建立되어서 지난 年末에 竣工檢査 申請을 했는데 이 때에 瑕疵部分이 발생되어서 이것을 지금 竣工을 내 주지 않고 전부 點檢을 해서 이것을 지금 再建築을 하느냐 아니면 補償을 하느냐 하는 問題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姜晶錫 委員; 이것을 나중에 파악 좀 해서.....

○監査官 李相鎭; 해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權會榮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監査官室의 人員이 적은데 土木, 建築 등 技術職에 대한 專門監査體制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길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事項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監査課에 技術1係가 있고 그 다음에 調査課에 技術1係가 있고 두 係가 있는데 이 두 係 갖고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技術監査擔當官室을 만들어서 課長 한 사람에게 係를 셋으로 해서 이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해서 금년도에 不實, 그런 면이 없도록 철저히 監査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機關長 發令時 事務引受引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서울에 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말씀이 계셨는데 關係局에서 指針을 傘下機關에 시달하겠다고 答辯을 했는데 區廳에 확인을 했더니 指針이 示達이 되지 않았고, 會議錄을 參照해서 履行與否를 對答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會議錄을 일단 복사를 해서 그 履行與否를 調査해서 權委員님께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韓仁洙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이 事項에 대해서
.....

○委員長 朴禧柱; 韓仁洙 委員님이 안 계시니까 書面으로 해주십시오.

○監査官 李相鎭; 네, 書面으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白中元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事項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政府主管 特監과 自體監査와의 차이점과 政府主管 特監時 摘發한 各種 非理를 22個區 自體監査 때 摘發하지 못한 理由는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 紛失領收證 原因監査 및 2次 監査計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政府特監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仁川, 富川 非理事件이 발생이 됨으로 해서 저희가 22個 區廳에 대해서 自體監査를 한 一週日 정도 진행하는 과정에 政府特監이 發表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저희 것을 스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政府特監이 왔는데 政府特監은 1,000名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 市 公務員들이 그 때 당시에 200餘名이 差出이 되어서 저희는 慶南, 慶北, 全南 이 地域에 대해서 저희 職員들이 나가서 한 달간 이렇게 監査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江南에서 大形事件이 터짐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 政府特監한 것을 除外시키지 않고 일단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5年치를 전부 監査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政府特監에서는 92년부터 94년까지 3個年치 200萬 원 이상에 대해서 監査를 했고, 저희 서울市에서는 5年치를 갖다 하여간 단 돈 1萬원도 다 포함을 시켜서 監査를 했던 이런 事項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政府特監에서는 직접적으로 肉眼監査 위주로 됐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전부 電算으로 監査를 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두번째로는 政府特監에는 摘發이 됐는데 왜 自體監査時에는 摘發하지 못한 理由가 뭐냐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반대의 概念이고요, 政府의 特監에서 발견됐던 것은 일단 다 발견되고 그 이외의 440件을 自體特監에서 더 발견이 된 그런 事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紛失領收證 관련해서는 저희가 紛失領收證에 대해서 銀行領收證은 있는데 登記所 領收證이 없든지 登記所 領收證이 있는데 銀行領收證이 없든지, 아니면 2個 다 없든지 이것을 전부 제일 처음에 39萬件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전부 3個를 對照해서 찾아 냈더니 24萬 件 정도는 일단 찾아서 확인이 됐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15萬件의 領收證이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2次分으로 돌려서 이제는 찾는 方法은 도리 없이 銀行에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필름을 저희가 일단 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監査期間 동안 마이크로 필름에 되어 있는 領收證으로 해서 찾아내는 이런 마음으로 2次로 돌려서 최대한도로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면 조흥은행 같은 데는 保存期間 3年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廢棄를 시켰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확인을 못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事項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次 監査計劃은 非理의 개연성이 비교적 낮고 稅務業務에 專門的으로 어떤 知識이 있어야지 監査가 가능한, 예를 들어 課標 불일치 事項이라든지 이런 事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234名을 저희가, 지난 번에 800名이었는데 1/4로 줄여서 234名으로 各區에 10名씩 이렇게 그래도 稅務를 아는 職員들을 배치를 해서 이것을 2月 25日 한 3日前부터 지

금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히 해서 나중에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稅金 뿐만 아니라 모든 分野에 걸쳐 어떤 上司에게 上納하는 그런 慣行, 이것이 根絶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除去對策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事項에 대해서는 저희 內部的으로는 사실을 이런 것이 監査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檢察에서 일단 職員들이 불러가서 搜查를 받고 나면 그게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報道가 되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監査로써는 限界性이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중복되는 答辯이겠습니다만 앞으로 職務監察과 職員들 教育 그 다음에 監査 이런 方向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年 10大 不條理分野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監査 중점으로 處理할 事項인데 요 稅務, 建築, 土地, 各種 工事, 保健衛生, 環境, 交通, 會計, 消防, 都市計劃 등 市民生活과 직결되는 이 分野를 選定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分野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중적인 監査計劃도 樹立했고, 이 分野에 長期間 勤務하는 그런 長期勤務者 또 金品授受 의혹이 강하다고 저희한테 提報가 되어 있는 이런 事項, 또 其他 모든 것을 綜合해서 특별히 금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로 赤十字會費와 관련 市民의 不滿이 있는데 點檢해 본 적이 있는냐, 方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年度 赤十字會費에 대해서는 1月 25日부터 3月 5日까지 현재 徵收 中에 있는데 赤十字會費와 관련해서는 이게 서울 市內 全 洞에서 500 몇 個洞이 넘는 全 洞에서 되고 있는 事項

이기 때문에 이것을 本廳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이제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分野에 대해서는 區 監査室하고 計劃을 해서 한 번 저희가 各 區別로 1個 洞이라든지 표본으로 監査를 해서 나중에 全 機關에 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微弱한 答辯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수고했습니다.

補充質疑하실 委員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權會榮 委員; 아니 한가지는 答辯을 해주셨는데 廳願問題에 대해서 議員이 紹介를 할 때에는 대부분 現場調査도 하고 狀況도 보고, 이런 것은 常識에 어긋난다, 이것은 잘못됐다, 고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에 한해서 거의다 紹介議員이 紹介를 한 것입니다. 또 해당 常任委員會에서 審査를 하고 現場調査도 하고 해서 이것은 마땅히 處理해야 된다, 해 줘야 할 것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렇게 常識을 갖고, 또 執行部에서도 그게 자기네들이 긍정적으로 答辯을 해서 이런 것에 한해서만 議會에서 移送를 했지, 執行部에서 이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전혀 常任委員會에서도 本會議에 내놓지도 않았고 本會議에서 또 移送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벌써 몇해씩 그냥 질질 끌고 있으면서 都市計劃局에서는 핑계가 지금 뭐 서울 市政開發研究院인가 뭐 하여튼 거기의 協議를 거쳐서 해라 하고 區廳에다 通知를 해요, 議會에는 그런 내용을 안 넣고, 사실상 그게 서울시 市政開發研究院이라고 해서 그게 用役機關이지 어디까지나 協議를 거칠 수 있는 對象機關은 아닙니다. 參考해 볼만한 것이고, 또 그 用役을 준 것은 大規模事業에 대해서 앞으로 基本計劃을 어떻게 樹立해야 하느냐 하는 問題를 用役준 것

이지, 아 조그만한 것 이런 것 잘못 돼서 이것 解除하는 것, 구멍이 뚫렸다거나, 뭐 자투리, 이것은 누가 보든지 常識에 어긋나는 것, 이런 것에 한해서 하는데 이것을 일부러 끌고 그래서 내가 市政質問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가 실지로 區廳에다 낸 것이 틀림없으니까 그것을 補充質問을 하지 말아 달라고 쫓아 다니는데, 내가 그래 그냥 사정을 봐 주고 補充質問을 안했어요.

자기네가 알아서 答辯하겠다고 그래서 風致地區라든가 또 公園用地라든가 불합리한 것, 예를 들어 몇 十萬坪 中에서 再開發을 하고 또 道路가 나고 그래서 일부 조금 못 쓰게 그냥 반달모양 남은 것을 이런 것, 이런 자투리, 또 가운데 구멍이 뻥 뚫어진 것,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地區라 그러면 일개 덩 어리를 말하는데 그 筆地에 2筆地나 3·4筆地 구멍이 뚫어진 것 이런 것을 地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그것 是正하겠다고, 바로. 答辯했어요. 또 함흥차사라고.

○監査官 李相鎭; 그러면 權委員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事項인지 그 資料를 저희한테 주시면 자세하게 調査를 해서 權委員님께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權會榮 委員; 그럼 제가 그 內容을 써서 監査官님한테 연락을 드릴게요.

○監査官 李相鎭; 네, 알겠습니다.

○權會榮 委員; 그렇게 해도 안하면 이것을 告發하든지 해야지, 무슨 措置를 해야지 안되겠다 말이에요, 議員으로서 威信이 있으니까.

○監査官 李相鎭; 네.

○委員長 朴禧柱; 權寧斌 委員, 補充質疑 간단히 해 주십시오.

○權寧斌 委員; 네.

아까 監査要員의 身分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했어요. 물론 現 制度上에 있어서 그런 점이 問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上部에서 制度가 改善이 되는 절차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問題는 우리가, 監査官으로 우리 監査官께서도 한 2年餘 이상 從事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監査의 責任者로서 뭔가 진짜 監査다운 監査를 하기 위해서는 制度的으로 이러 이러한 것이 是正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建議를 한다든가 改善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그저 알고 주어진 與件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議員이 존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뭔가는 發展的인 면에서 改善을 하고, 고치고, 더 나은 어떤 制度, 더 나은 市民生活을 구가하기 위해서 우리도 奉任하고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關係監査要員들도 따지고 보면 監査를 하되 어떤 주어진 與件이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現行 與件이 맞지 않는다 이랬을 적에는 부단히 노력을 해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 委員들을 통해서 建議도 하고 또 자꾸 질타를 하고 이러면서 나아지는 것 처럼 뭔가는 監査다운 監査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身分保障이 안 돼서 所信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監査官께서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좀 衷情을 가지고 建議를 해서 改善을 해 달라 그런 意味입니다.

○監査官 李相鎭; 네, 알겠습니다.

○權寧斌 委員; 그리고 이제 아까 業務報告에도 잠깐 비쳤습니다만 작년에 어린이 집 監査를 했었지요?

○監査官 李相鎭; 네.

○權寧斌 委員; 그런데 이 어린이 집의 補助金 뿐만이 아니라 지금 某 어린이 집에도 제가 非理事例를 보니까 실습생이 나왔는데 실습생을 職員인양 虛偽記載를 해서 계속 月給을 着服하고 또 그리고 副食費라든가 補助하는 費用에 걸맞는 그런 飲食을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야말로 형편 없는, 김치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제가 日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問題, 또 이제 物件을 購入하는데 시체말로 가져 領收證을 만들어서 이렇게 補完을 하고 또 하나는 正規學生으로 登錄을 안하고, 말하자면 保育費는 받아서 따로 챙기고 正規學生으로 登錄을 안해요 그런 事例, 이런 事例들이 있는데 이게 區廳에서도 손을 댔는데 엉터리이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家庭福祉課하고 어린이 집 運營하는 사람들하고 癒着이 되어서 오히려 情報提供을 하면 그것을 合理化시켜 줍니다. 불러다 이러 이러한 것이 있는데 고쳐라, 뭐 가서 오히려 그야말로 그런 것을 提報한 사람이 被害를 입는, 團體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公務員의 組織的인 그런 어떤 慣行들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公務員이 良心的으로 잘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公務員 組織社會에서는 그야말로 안하는 것이 慣行인 이런 것들이 있다보면 찍히는 것이지요, 시체말로. 예를 들어 進級이라든가 同僚間에 여러 가지로 배척당하는 그런 事例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監査가 하나마다, 오히려 免罪符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指摘한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시지요?

○監査官 李相鎭; 네.

○權寧斌 委員; 内部的으로, 人間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身分의

限界가 그렇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議員生活 4年하면서 과연 내가 뭘했는가 이렇게 할 적에 참 懷疑를 많이 느낍니다. 정말 먹고 사는 問題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쫓아 나와서 뭐 이것 저것 뒤적거리서 質疑를 하면 東問西答같은 그런 答辯만 듣고, 야,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한 것 내가 뭣하러 하는가 하는 이런 懷疑를 느낍니다. 뭐 이러면서 發展이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도 유념을 해서 어린이 집에 대해서, 그야말로 옛날에 軍糧米事件도 있었지 않습니까, 6·25때? 그러한 어린이들을 착취해서 다시 어린이 집을 委託經營 받은 사람이 着服을 하는, 그래서 着服한 돈으로 政治를 한답시고 上納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事例들이 있어요. 제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되지 않느냐, 지금 90年代 21世紀 뭐 비전을 찾고 이러는 마당에, 아까 赤十字 얘기도 마찬가지로 맥락이거든요. 도저히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현재도 안고 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딱부러지게 우리가 是正을 해야 여러분이 고생하는 보람,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떠드는 보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監査官 李相鎭; 잘 알겠습니다.

그럼 權委員님, 資料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어린이 집에 대한 監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寧斌 委員; 이것을 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또 이게 누설이 돼요.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그게 問題예요. 資料提供을 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保安을 해야 되는데 監査要請한 사람이, 그러니까 公務員들이 자기 잘못을 是認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要請했냐, 아 뭐 누구 누가 했다 그러면 말이죠 씹고

다닌다고요. 그래 그런 것들이 괴롭습니다.

○監査官 李相鎭;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禧柱; 補充質疑가 더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監査官所管 業務에 대한 質疑答辯을 終結하고 監査官所管 業務計劃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官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委員 여러분 그리고 監査官 및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3月 2日 10時에 第2次 內務委員會를 開議하여 民防衛局과 內務局所管 業務計劃報告와 案件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午後 豫定이었던 消防本部所管 業務報告는 本會議가 開催되는 3月 3日 10時에 第3次 內務委員會를 開催하여 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散會한 후에 商工會議所에서 開催하는 서울시 廳舍 建立市 民討論會에 다같이 參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고 散會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散會)

○出席委員

朴禧柱 郭壽榮 韓仁洙 朴光勳

白中元 李永和 朴向東 權寧斌

權會榮 姜晶錫 金鍾雄 沈相一

文一權

○專門委員

鄭文孝

○出席公務員

監査官 李相鎭